

설 연휴 냉골방 모녀...해경 부부가 살렸다

목포해경이중선 계장·윤옥희 부부

고향 함평 이웃집 인기척 없어 살피
'영양실조' 40대 엄마·9살 딸 발견
병원 진료비 대납·난방유 지원 등
"당연한 일...복지사각지대 관심을"



난방이 풀긴 한 시골집에서 굶주림 등으로 생사의 기로에 놓인 모녀를 해양경찰관이 구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훈훈함을 주고 있다. 미담의 주인공은 목포해양경찰서 이종선(00·사진 오른쪽) 예방지도계장과 그의 아내 윤옥희(59·목포중앙초 조리공무원) 씨다. 이들 부부는 지난달 18일 설 명절 연휴를 맞아 고향인 함평군을 찾았다가 평소와 달리 이웃집

에 인기척이 없음을 느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문을 두드렸지만 내부에서 반응이 없자 직접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믿기 어려운 광경을 마주했다. 냉기가 가득한 방 안에는 40대 어머니와 9살 딸이 영양실조로 쓰러져 있었다. 어린 딸은 스스로 끼니를 해결하지 못한 채 방치된 상태로,

집 안 어디에도 식사를 준비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해당 모녀는 평소 외부와 교류가 거의 없었고,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위급한 상황임을 직감한 부부는 지체 없이 모녀를 인근 병원 응급실로 긴급 이송했다.

담담 의사는 "어머니는 폐와 간, 위 등 주요 장기가 크게 손상돼 배에 복수가 차 살아 있는 것 자체가 기적에 가깝다"는 소견을 밝혔다. 조급한 발견이 늦었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부부는 굶주린 아이를 위해 인근 식당에서 떡국을 먹고, 간식을 구입해 건넸다. 또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연락해 긴급 생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발 빠르게 나섰으며, 사비로 진료비를 대납하고 난방유 기름값도 지원했다. 이후 긴급 생계지원 대상에 선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부부는 안도했다. 이종선 계장은 "이웃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복지 사각지대 문제는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한다. 더 이상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작은 신호에도 귀 기울이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기자

김유리 전남대학교 치전원생
'당뇨병-치주질환 연관성' 규명



전남대학교는 5일 "치의학 전문대학원 김유리(사진) 학생이 당뇨병 환자의 인슐린 저항성과 치주질환의 연관성을 규명한 연구로 세계적인 치주과학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했다"고 밝혔다. 김유리 학생은 당뇨병 환자에서 인슐린 저항성 지표와 치주질환의 관련성을 전국 단위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2010-2018년 자료를 기반으로 당뇨병 환자 3천542명을 살렸으며, 다양한 비인슐린 기반 인슐린 저항성 지표 가운데 METS-IR 지표가 치주질환과 가장 강한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트리글리세리드-포도당 지수(TyG index)와 허리둘레 대비 신장 비율(WHtR)을 결합한 지표 'TyG*WHtR'가 가장 높은 진단 정확도를 나타냈다는 사실도 알아냈다. 이번 연구는 당뇨병 환자에서 대사 이상을 반영하는 혈액 기반 지표를 활용해 치주질환 고위험군을 조기에 선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임상적 의미를 가진다. 정희호 지도교수는 "전남대의 체계적인 연구 지원을 바탕으로 학생이 주도적으로 의미 있는 학문적 성과를 거둔 점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학생 연구자들의 도전과 성장을 통해 지원원의 경쟁력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선욱기자

"성인 뇌성마비 환자 보행 재활 임상 출발점"

GIST·뉴욕주립대 로봇재활 기술 개발

로봇 훈련·청각 바이오피드백 결합

5명 대상 실험...근육 활성 등 확인



"이번 연구는 성인 대상 로봇 보행 재활의 임상 적용 범위를 넓힐 수 있는 출발점으로 향후 대규모 임상 연구와 실제 치료 기술 개발로 이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성인 뇌성마비 환자의 보행을 돕는 새로운 로봇 재활 기술이 개발돼 주목받고 있다.

5일 광주과학기술원(GIST·지스트)에 따르면 강지연 AI융합학과 교수가 이끈 한-미 공동 연구팀이 성인 뇌성마비 환자의 보행을 돕는 새로운 로봇 재활 기술을 개발했다. 이번 기술은 걷는 동안 적절한 저항을 주는 로봇 훈련과 자신의 걸음걸이를 소리로 인지할

수 있게 해주는 청각 신호를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뇌성마비는 출생 전후 뇌 손상으로 인해 근육 조절이 어렵고, 여러 근육이 동시에 자연스럽게 움직이지 못하는 신경질환이다. 그동안 로봇을 활용한 보행 재활 연구는 주로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성인 환자를 위한 체계적인 임상 연구는 제한적이었다. 연구팀이 성인 뇌성마비 환자 5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발을 내딛을 때 발을 들어 올리는 근육의 활성 증가 ▲발을 밀어내는 종아리 근육의 조절 능력 향상 ▲보폭의 증가 ▲발끝 여유 높이가 증가 ▲발의 이종지지 시간 감소 등 주요 보행 지표에서 의미 있는 개선이 확인됐다. 발끝꿈치에서 발끝으로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보행 패턴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강지연 교수(교신저자)가 지도하고, 뉴욕주립대 버팔로 수빅 포드 박사과정생(제1저자)과 GIST AI융합학과 박재형 박사과정생(제2저자)이 수행한 이번 연구에는 뉴욕주립대 버팔로의 진 령진 교수, 로라 카부오토 교수, 엘레오노라 M. 보타 교수가 공저자로 참여했다. /박선욱기자



조선대의대-우간다마케레레대 '의학 협력'

조선대학교는 5일 "의과대학이 아프리카 우간다 국립 마케레레대학교 의과대학과 의학 교육 및 보건과학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상호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마케레레대는 1922년 설립된 우간다 최고 국립대학으로, 아프리카 대륙을 대표하는 연구 중심 대학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는다. 특히 의과대학은 동아프리카 지역 보건 의료 연구와 인재 양성의 핵심 거점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협약은 의과대학 교육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글로벌 보건 의료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의학 교육과 연구 역량을 국제적으로 확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대학은 협약을 통해 ▲공동 연구 사업 추진 ▲교수·학생 교류 확대 ▲학술 지식 공유 ▲보건 과학 분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영준 조선대 의과대학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조선대의 교육 인프라와 마케레레대의 보건과학 역량이 만나 세계 보건 난제를 해결하는 혁신적인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교수·학생 교류를 활성화해 학생들이 글로벌 감각을 갖춘 의료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선욱기자



한국정원문화네트워크전남 '정기총회' 성료

사단법인 한국정원문화네트워크전남은 지난 4일 담양군담빛농업관 2층 세미나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정기총회에서는 2025년 감사보고·결산 승인과 올해 주요 사업계획·예산집행 계획안, 업무공간 확장을 위한 본점 이전 안건을 상정 논의했다. 또 컨퍼런스 개최와 캠페인 활동, 공동체정원 조성, 민간정원 사례 연구·탐방 등의 사업계획이 제안됐다. 나한도 기획이사는 2027년 정원비엔날레와 관련해 "공간 구성의 확장과 기본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 그룹과 원주민이 함께하는 민간 참여 구조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담당=정승균기자

이러 "지역의 문화가 K-컬처를 선도하는 좋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다양성이 살아 숨 쉬는 민간 주도형 비엔날레가 되도록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배정수 회장은 "보조금 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과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회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정기총회는 인문과 정원이 결합된 담양형 도시문화의 비전을 공유하고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지속가능한 정원 생태계 구축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의미를 더했다. /담당=정승균기자

"미래 인재 양성"...최부흥 목포해양대 총장 취임

"지역을 넘어 세계로 진출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한민국을 해양강국으로 도약시키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국립목포해양대학교는 지난 3일 미래융복합관 대강당에서 '제9대 총장 최부흥 박사 취임식'을 개최했다. 취임식에는 역대 총장을 비롯해 김원이 국회 의원, 조석훈 목포시장 권한대행, 고승범 해군 제3함대사령관, 이혁영 씨월드고속철도 회장, 등문, 학생, 교직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미래 해양인재 양성과 교육 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해사대학 32기 고(故) 이희배 동문이 1억4천만원, 김일동 대륙상운 회장 겸 희망장학재단 이사장이 5천만원의 발전기금을 기탁했다. 조성종 마린글로벌리 대표이사는 매년 2천만원씩 기탁하기로 하는 등 대학 발전을 위한 뜻깊은 기부가 이어졌다. 최부흥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대학이 학생



의 인생을 바꾸고, 지역이 자랑스러워하며, 국가에 책무를 다하는 세계적 명문 해양대학교로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비전을 제시했다. 한편 최 총장은 한국해양대학교에서 학사·석사학위를, 2002년 일본 고베대학에서 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2003년 국립목포해양대학교 기관시스템공학부 교수로 임용돼 학문 연구와 후학 양성에 힘써왔다. /목포=정해선기자

전남대병원 구강악안면외과, 방글라데시서 의료봉사

전남대학교병원은 "구강악안면외과 박홍주 교수 봉사팀이 방글라데시에서 의료 봉사·학술 교류 활동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달 16일부터 일주일간 펼친 이번 봉사 활동에는 박 교수와 전공의 2명, 간호사 2명이 참여했다. 박 교수팀은 방글라데시 다카 국립 치과대학 병원과 사스토 치과대학을 잇따라 방문해 현지 의료진과 함께 진료를 했다. 특히 구순구개열 환자들에게 기능적·심미적 회복 수술 14건을 진행했다. 현지 의료진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학술 행사도 함께 진행했다. 박 교수는 현지에서 임플란트 치료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강연을 펼쳤다. 기본 원리부터 치조정 부분 분절술, 상악동 거상술 등 고난도 수술법까지 폭넓게 다루 현지 치과의사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병원은 이번 봉사 활동을 계기로 향후 현지 정기 방문과 공동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강악안면외과 봉사팀은 "일회성 방문을 넘어 지속적인 학술 교류와 임상 협력을 통해 방글라데시의 구강악안면외과 진료 수준을 끌어 올리는 데 기여하고 싶다"며 "꾸준한 국제 교류를 통해 병원의 위상을 알리고 의료인의 사명인 봉사 정신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기수희기자

광주 북부소방-북구시설관리공단 '재난 안전' 협약

광주 북부소방서는 5일 공영주차장 재난안전 대응체계 구축과 민원인 주차 편의 개선을 위해 북구시설관리공단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북구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인접한 주차장을 권역별로 묶어 소방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북부소방서 민원인의 주차 편의를 위해 일부 주차 공간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주차장 내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비상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에도 협력할 계획이다. 조현환 북부소방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영주차장의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고 민원인의 주차 편의를 개선하는 등 시민 안전과 편의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찬웅기자



함평경찰,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함평경찰서는 지난 4일 함평초등학교 앞에서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캠페인은 신학기를 맞아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직원과 녹색어머니회 등 20명은 등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며 교육물품을 배부했다. 권춘석 서장은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도박 등 다양한 청소년 범죄의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예방활동에 힘쓰는 한편 지역사회와 협력해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기영규기자